

# 130인치 초대형에 AI 결합… 삼성, ‘마이크로 RGB TV’ 선보

## 초프리미엄 TV 기술력 공개

RGB LED 독립 제어로 화질 강화  
마이크로 RGB로 명암 표현 확대  
AI 엔진 탑재해 장면별 자동 조정  
BT2020 100%, VDE 인증 획득

삼성전자가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AI 전략을 공식화하며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 개막에 앞서 ‘더 퍼스트 룩’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 AI 전략을 발표했다 고 5일 밝혔다.

대표 연사로 나선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은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군과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삼성전자 130형 마이크로 RGB TV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고객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AI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객들의 일상 속 AI 동반자가 되어 ‘AI 경험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으로 ▲개방형 협업을 통한 고객 선택권 확대 ▲온디바이스·클라우드

AI 간 효과적 결합을 통해 AI 서비스 최적화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AI 경험 제공하는 스마트싱스·윈 UI·나우 브리프 등 AI 인터페이스 강화 ▲삼성 녹스 기반 강력한 보안과 AI 신뢰도 강화를 소개했다.

특히 세계 최초 130형 ‘마이크로 RGB

TV’를 프레스 콘퍼런스 무대에서 처음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마이크로 RGB TV는 스크린에 마이크로 크기의 RGB(빨강, 초록, 파랑) LED를 미세하게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해 빨강,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특히 RGB LED 칩 크기를 100μm 이하로 줄인 마이크로 RGB 기술을 적용해 화면 색상과 밝기를 보다 촘촘하고 정교하게 제어 할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 RGB 기술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정교하게 조정해 명암 표현을 높이는 ‘로컬 디밍 효과’를 극대화한다. 소자가 미세해진 만큼 깊은 검은색과 밝은 이미지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130형 마이크로 RGB TV에는 삼성전자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담은 ‘타임리스 프레임’이 적용됐다. 또한 삼성전자의

최신 AI 엔진인 ‘마이크로 RGB AI 엔진 프로(Micro RGB AI Engine Pro)’가 탑재됐다.

최신 AI 엔진 프로는 화질과 음질을 모두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구현해준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 RGB 컬러 부스터 프로’와 ‘마이크로 RGB HDR 프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장면별로 최적의 색상과 명암을 정교하게 조정해 어떤 밝기의 장면에서도 선명한 색감과 뛰어난 디테일을 구현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 부사장은 “마이크로 RGB TV는 삼성전자의 화질 혁신의 정점을 보여주는 기술로, 이번에 공개한 130형 모델은 그 비전을 한 단계 더 확장한 제품”이라며 “삼성전자가 차세대 기술력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LG “홈로봇·차량솔루션 등 AI 확장”… ‘공감 지능’으로 일상 혁신

### ‘당신에게 맞춘 혁신’ 주제 전시

가사부담 줄인 ‘제로 레이버 홈’  
車 안전·편의 강화 AI 전장 기술  
TV·가전까지 개인화 경험 확대

LG전자가 CES2026에서 AI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중심으로 한 미래 생활 비전을 제시한다. TV와 가전을 물론 로봇, 차량용 솔루션까지 아우르며 기술 경쟁력을 내세운 가운데 LG디스플레이도 차세대 OLED 패널과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공개하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LG전자는 ‘당신에게 맞춘 혁신’을 주제로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LG전자 올레드 예보 W6.

/LG전자

nce)의 진화를 선보인다. 전시관에서는 제로 레이버 홈을 구현하는 AI 가전과 홈로봇 ‘LG 클로이드’,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 맞춤형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T

V 라인업, 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등을 한자리에 소개한다.

TV 부문에서는 초슬림·무선 기술을 앞세운 2026년형 올레드 예보 라인업이 핵심이다. LG전자는 9mm대 두께의 무선 월페이퍼 TV ‘LG 올레드 예보 W6’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계 최초로 4K·165Hz 영상과 오디오를 손실·지연 없이 전송하는 무선 기술을 적용해 케이블 연결을 없앴으며,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제로 커넥트 박스’ 역시 소형화했다.

W6·G6·C6 등 올레드 예보 라인업에는 듀얼 AI 엔진 기반 3세대 알파 11 AI 프로세서와 ‘하이퍼 래디언트 컬러’ 기

술이 적용됐다. 두 가지 AI 업스케일링을 처리하는 ‘듀얼 슈퍼 업스케일링’을 통해 자연스러운 화질을 구현하며, 화면 밝기는 기존 올레드 대비 최대 3.9배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초저반사 디스플레이와 고성능 게이밍 기능도 탑재해 활용 범위를 넓혔다.

가전과 로봇 분야에서는 AI를 통한 생활 밀착형 경험을 강조했다. LG 클로이드는 상황 인식과 학습, 정교한 제어 능력을 갖춘 홈로봇으로 제로 레이버 홈 구현의 중심에 섰다. AI 냉장고와 워시타워 등 가전 제품 역시 사용 패턴을 학습해 보관·세탁·건조 과정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차량용 솔루션도 전시의 한 축을 이뤘다. LG전자는 투명 OLED와 인제빈 센싱 기술을 적용한 차량용 디스플레이·비전 솔루션을 선보이며, AI가 운전자 상태와 주행 환경을 분석해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모습을 시연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며 소재·부품 경쟁력을 부각했다. 대형 OLED 부스에서는 독자 기술인 ‘프라이머리 RGB 탠덤’을 발전시킨 ‘프라이머리 RGB 탠덤 2.0’을 적용한 신규 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최대 휘도 4500니트와 0.3% 수준의 초저반사율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차현정 기자

## LGD, 세계 최초·최고 OLED 기술 전시

RGB 탠덤 2.0 적용한 OLED 선배  
최대 4500니트·0.3% 반사율 구현  
SDV시대 겨냥한 차량용 OLED 제시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된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풀라인업과 진화하는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설루션을 선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래드 호텔과 컨벤션센터(LVCC) 웨스트홀에서 대형 OLED 부스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부스를 각각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전시 주제는 ‘AI(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모두를 위한 OLED’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이는 동시에 OLED 대중화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차별화된 시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콘래드 호텔에 마련한 대형 OLED 전시 부스에서는 OLED 화질 혁신의 정점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이 ‘2026년 신규 OLED TV 패널을 선보이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을 보여줄 새로운 OLED TV 패널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빛의 삼원색(적·녹·청)을 각각 독립된 층으로 쌓아 빛을 내는 LG디스플레이 독자기술 ‘프라이머리 RGB 탠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프라이머리 RGB 탠덤 2.0’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신규 OLED TV 패널은 최대 휘도 4500니트 구현에 성공했다. 또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 분산시켜주는 기술까지 탑재해 현존 디스플레이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반사율(0.3%)도 달성했다. /차현정 기자

## 현대차, ‘모베드’로 글로벌 기술력 입증

로보틱스 부문 최고혁신상 수상  
혁신성·디자인 등 종합 평가 최고점

현대자동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로보틱스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출판작 중 혁신성, 디자인, 기술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혁신상을 수여한다. 그중 최고혁신상은 각 부문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상작에 부여된다.

5일 CTA에 따르면 현대차는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ile Eccentric Droid, MobED)로 로보틱스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가 CES에 참가한 이래 처음으로 수상한 혁신상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최고

혁신상으로 받은 것은 로보틱스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양산형 모베드는 지난 2022년 CES에서 콘셉트 모델을 공개한 이후 약 3년간의 제품 개발 과정을 거쳐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했다.

모베드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 안정성’이다.

현대차는 올 1분기부터 모베드를 양산해 고객에게 판매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가전·모빌리티 경계 허문 ‘AI 경쟁’

>> 1면 ‘삼성·LG·현대 등…’서 계속

이같은 전략은 TV사업에서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CES개막에 앞서 ‘더 퍼스트 룩’ 행사에서 130형 마이크로 RGB TV를 공개했다. RGB LED를 미세 단위로 제어하는 마이크로 RGB 기술과 전용 AI 엔진을 결합해 화질·명암·색 정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

서 단독 전시관을 통해 제품 전시와 발표 행사 등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꾸몄다. 전시 공간만 업계 최대 규모인 4628㎡(약 1400평)에 달한다.

LG전자는 ‘공감지능’을 키워드로 내걸었다. AI가 사용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TV 분야에서는 초슬림 디자인과 무선 기술을 앞세운 유기발광다이

오드(OLED) 예보 W6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했다. LG전자는 LVC 센트럴홀에 ‘당신에게 맞춘 혁신’을 주제로 2044㎡ 규모 전시관을 조성했다.

현대차그룹은 5일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인류의 진보와 함께하다: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를 주제로 AI 로보틱스 전략을 공개한다. 특히 주요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정의선 회장이 직접 참석해 그룹 차원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비전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차현정 기자